

2. 순천의 신흥종교

한말 순천지역에서는 최제우의 동학이 포교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나 문헌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일제 초기에 동학의 정통 교단인 천도교가 순천지역에서 상당한 교세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뒤 당시 낙안군(지금의 낙안면) 출신 나인영이 한민족의 국조 단군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종교단체를 이곳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인영은 이 지역에서 종교단체를 직접 조직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에서 단군교(뒤에 대중교로 이름을 고침)를 창립하여 고향인 이 지역에서 포교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1931년 증산교인 서백일(徐白一)이 구례군 간문면 토고미라는 곳에 '금산사미륵불교포교소'를 창교하여 순천지역에서 잠깐 포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19년경 증산교계 미륵불교인 장기준(張基準)이 승주읍 국사봉 아래에서 유교의 경전의 하나인 『서전(書傳)』의 서문을 천 번 읽어 도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암면에서 '순천교(증산교법문과)'를 창교하여 포교하였다. 이들 교단들은 일제 때 순천 주변 지역에서 창교되어 이곳에서 포교를 시도하였지만 뒤에 가서는 교단의 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포교하였다. 따라서 순천지역에 당시로서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몇몇의 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독교계인 문선명의 통일교와 박태선의 전도관이 순천시에 유입·포교되기 시작했다. 계통불명인 강대성의 일심교도 이때 유입·포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뒤 국내에서 창교된 각종 신흥종교들이 순천시에 지부와 같은 포교 전담소를 설치,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때 일본의 국수주의 종교로 알려진 일연정종이 순천시에 들어와 한때 교인 수천을 헤아리는 큰 교단을 이루기도 하였다. 외래계로는 일본계의 천리교와 일연정종이, 중국계로 도덕회와 국제도덕회가, 그리고 미국계로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일찍이 순천지역에 포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리 밝혀두지만 이들 신흥종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유입과정과 포교현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다음에서는 이 지역에 현재 포교되고 있는 신흥종교들에 대하여 그동안 탐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 교단의 창교 경위와 교리 그리고 신행(信行)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